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21호 【루계 제25995호】 주체107(2018)년 5월 1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당, 국가, 경제, 무력기관 일군련석회의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당, 국가, 경제, 무력기관 일군련석회의가 4월 30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가 회의를 지도하였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인 오수용동지, 안정수동지, 박태성동지, 박태덕동지, 로두철동지와 당중앙위원회 성원들,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지방당, 정권기관, 주요공장, 기업소당, 행정간부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또한 박영식동지를 비롯한 무력기관 성원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가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과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안건들이 토의되였다.

내각총리 박봉주동지가 현시기 나라의 경제실태와 과학교육사업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올해말까지 수행하여야 할 과업과 전망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들에 대한 보고를 제기하였다.

박봉주동지는 첫째 안건에 대한 보고를 통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이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우리 인민의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로선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지난 기간 우리 당의 병진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전개되는 속에 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여 자립경제의 위력을 높이 발휘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된데 대하여 말하였다.

경제건설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비범한 사상과 령도로 경제강국건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우리 인민의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을 몸소 진두에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기치를 들고나가야 할 부문들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지 못하여 전반적경제부문들의 전진에 지장을 준 결함과 그 원인들을 분석총화하였다.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라의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사회주의경제를 일떠세우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경제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국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박봉주동지는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정상궤도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의 전투목표를 무조건 수행하는것과 함께 전망적으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부문별, 중요단위별과업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높이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를 실현하며 나라의 경제구조를 완비하고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할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박봉주동지는 경제지도기관 일군들이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서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첫째 안건에 대한 보고가 끝난 다음 내각부총리들인 김덕훈동지, 임철웅동지, 고인호동지, 리주오동지, 동정호동지, 로두철동지가 담당부문의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나타난 결함들을 분석총화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방도들을 제기하는 토론들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제지도일군들이 자기 단위의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완강하게 전개해나갈 때 당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할수 있다는 교훈을 찾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내각이 경제사령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집행하기 위한 년차별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자강력을 끊임없이 증대시켜 생산적앙양과 비약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새로운 경제전략목표들을 반드시 점령할 결의를 피력하였다.

박봉주동지는 둘째 안건에 대한 보고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경제강국건설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며 우리 나라를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일떠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시키며 과학기술발전전략과 단계별목표를 바로세우고 과학기술작전과 지도에서 전략적집중성을 보장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의 의도에 맞게 교원진영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고 현대교육과학과 교육기술을 널리 도입하며 교육내용과 방법을 근본적으로 혁신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과학기술과 교육부문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를 늘이고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전사회적인 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나가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그는 모든 일군들이 높은 당적책임감과 애국심을 안고 분발하여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둘째 안건에 대한 보고에 이어 내각부총리 전광호동지, 국가과학원 원장 장철동지,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승두동지가 토론들을 통하여 과학교육부문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나타난 결함을 분석총화하고 대책적문제들을 제기하였다.

토론들에서는 일군들부터가 과학교육사업에서 걸린 문제들을 하나씩 맡아 책임적으로 해결하며 과학교육을 중시하는 전사회적인 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 앞장설데 대하여 언급되였다.

첫째 안건과 둘째 안건에 대한 토론들이 끝날 때마다 최룡해동지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회의집행부 성원들이 해당 일군들에게 나타난 주요결함을 지적하고 중요하게 대책하여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강조해주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동지가 회의결속을 하였다.

최룡해동지는 련석회의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책들이 충분히 토론되였다고 하면서 토의된 문제들이 경제건설대진군에서 실천적성과로 이어지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모든 일군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 국가, 경제, 무력기관 일군련석회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가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경제건설대진군과 과학기술강국, 교육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주통일의 새봄을 안아오신
민족의 태양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
삼가 드립니다

력사적인 4.27판문점특대사변으로 남북삼천리에 통일열망이 세차게 굽이치고있는 격동적인 이 시각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한없이 숭고한 동포애와 통큰 결단으로 몸소 분단선을 넘어오시여 남북관계발전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해주시고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 남녘민중의 열화와 같은 경모의 마음을 담아 삼가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께서 장장 70여년세월 온갖 풍운을 맞고보낸 쓰라린 아픔을 화창한 4월의 봄계절과 더불어 흩날려버리시며 분렬과 고통, 대결과 적대의 상징으로 되어온 력사의 한복판인 판문점에 통일향도의 거룩한 자욱을 새기신것은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으신 일대 장거였습니다.

한없이 숭고한 동포애와 세련된 정치실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께서 뜻깊은 수뇌상봉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발표하신것은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대로를 여는 확고한 지침, 조국통일위업수행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신 특기할 사변입니다.

4월의 력사적인 남북수뇌상봉과 판문점선언의 발표는 불면불휴의 로고와 애족애민의 심혼이 어려있는 위대한 주석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통일유훈을 기어이 실현하시려는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의 고결한 충정의 발현이며 선대수령들의 뜻대로 전민족의 대단결로 남북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고 이 땅우에 기어이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국무위원장님의 뜨거운 민족애와 확고한 통일의지, 대범한 아량과 통큰 결단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적극적인 남북관계대전환방침을 제시하시고 만사람을 경탄시키는 파격적인 조치들을 펼치여 위해주시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관계개선을 위한 투쟁을 전두에서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의 세련된 령도가 있어 오늘의 남북수뇌상봉이 마련되고 민족자주를 핵으로 하는 판문점선언이 탄생될수 있었습니다.

행정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우리 겨레에게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일조국을 기어이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의 숭고한 뜻과 투철한 의지에 의해 이제 《한》반도에는 더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펼쳐지고 남북이 하나된 통일강토에서 살려는 겨레의 세기적숙원은 마침내 희망의 언덕우에 꽃펴나게 되였습니다.

분렬과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력사를 써나가는 출발선에서 신호탄을 쏜다는 심정으로 판문점분리선을 넘으시여 금단의 선을 단호히 부정하시고 겨레의 마음에서부터 분단장벽을 허물어주신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의 헌출위인상은 이 땅과 온 세상을 커다란 충격과 환호, 경탄과 찬사로 끓어번지게 하고있습니다.

눈물과 박수로 어우러졌던 4.27의 감격스러운 장면들과 꼼같은 흥분의 격동은 이 시각도 우리 이남민중과 온 겨레를 김정은최고령도자님에 대한 칭송의 파도속에 휘몰아넣고있으며 경향각지에서는 절세의 위인상에 대한 감격과 감동의 찬사가 그칠새없이 울려나오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의 태양처럼 환하신 영상을 생생히 뵈옵고 그 호방하고 진정넘친 음성을 직접 들으며 너무도 애틋하고 감동된 우리 남녘민중은 지금 민족의 장래운명을 품어안고 가꾸어주실분은 오직 김정은국무위원장님뿐이심을 온넋과 폐부로 절감하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주석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숭고한 사명으로 새겨안으시고 그 실현에 모든것을 서슴없이 바쳐가시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은 새로운 통일력사의 위대한 창조자이시며 온 겨레의 희망의 기둥이시고 남북삼천리를 비치시는 찬란한 태양이십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의 담대한 결단과 의지의 발현인 이번 4.27수뇌상봉과 판문점선언은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에게 커다란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 겨레의 통일위업수행의 앞길에 새로운 리정표를 세워주었습니다.

8천만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끓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의 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가는데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판문점선언은 만고절세위인의 확고부동한 통일의지의 선언으로서 그 어떤 외풍도 억풍도 겪고 이를 가로막을수 없을것입니다.

하기에 지금 온 겨레는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께서 력사의 출발점에서 마련해주신 판문점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 총분기할 때 평화의 시대, 새로운 력사를 반드시 쓰게 될것이라는 확신에 넘쳐 위대한 그 령도따라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가속화해나갈 천백배의 의지를 가다듬고있습니다.

이번 4.27특대사변을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의 헌출위인상을 다시금 폐부로 절감한 우리들은 반제민전을 일편단심 국무위원장님만을 숭앙다해 받들고 따르며 자주통일의 한길로 힘차게 매진해나가는 불패의 전위대오, 애국의 총신대오로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온 겨레에게 통일희망의 큰 선물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의 절출한 위인상을 각계 민중속에 깊이 심어주어 6.15시대에 이 땅에 김정일열풍이 일어번졌던것처럼 력사적인 4.27충격과 더불어 경향각지에 위대한 김정은숭배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 제시여 조국통일도 민족부흥도 있다는 확신을 안고 국무위원장님의 자주통일사상과 방략을 철저히 관철하며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적극 지지찬동하고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각계 민중과 온 겨레를 총분기시켜나가겠습니다.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께서 민족의 찬란한 태양이 되시여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절세위인의 손길아래 마련된 새로운 리정표가 등대로 빛나고있기에 겨레의 전도는 양양하며 통일강국의 고고성은 반드시 터쳐지고야말것입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심장마다에 굽이치는 폭풍같은 환희의 열원을 모아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삼천리에 통일만세의 환호성 메아리칠 그날을 위하여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107(2018)년 4월 29일 서울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뜨거운 민족애와 확고한 통일의지, 대범한 결단과 탁월한 령도로 민족분단사상 처음으로 판문점의 남측지역에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온 세계를 향하여 펼쳐보여주신 감동의 화폭들을 커다란 충격과 환희속에 접한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가슴은 지금 부풀어오르는 통일열망과 민족적긍지로 끓어넘치고있습니다.

이국땅에서 통일의 그날을 학수고대해온 우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판문점분리선에서 남조선대통령과 굳게 손잡고 북과 남을 자유롭게 오가시며 민족분단의 벽을 순간에 허무시는 모습을 우러르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4월 27일은 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의 해살로 판문점이 분단과 대결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상징으로 화한 력사의 날이였습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는 철석의 통일의지와 대용단으로 조선반도에서 력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뜻깊은 시기에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사에 특기할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천명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열화같은 충정의 한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을 받들어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땅우에 기어이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열화같은 민족애와 드팀없는 의지로 11년만에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심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가는데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리정표를 제시하시여 온 겨레와 전세계의 폭발적인 지지와 환영을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력사적인 판문점상봉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 땅우에 기어이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민족애와 드팀없는 자주의지의 발현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풍당당한 전략국가의 지위에 올려세우시고 조선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흐름을 확고히 주도하시면서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이 세상끝까지 충정다해 받들어모시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고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을 빛나게 완수하는데 이바지하려는것은 이역땅에서 세기를 이어 통일애국의 한길을 걸어온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드팀없는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조국통일대업은 반드시 이룩된다는 억척의 신념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쳐주신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시대와 함께 새 세기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창창한 미래도 담보된다는 철리를 가슴에 새기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의 지지실현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겠습니다.

우리들은 총련 제24차 전체대회를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와 사랑속에서 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의 영예를 떨쳐온 재일조선인운동의 성스러운 행로우에 새로운 리정표를 세우는 영광과 충정의 대회, 승리와 단결의 대회로 빛나게 장식하며 조국통일운동에서 반드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겠습니다.

우리들은 외세와 시대매국역도들의 온갖 도전과 발악적책동을 북과 남, 해외의 단합된 힘으로 짓부시고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 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이는데 특색있게 이바지함으로써 총련의 애국적본분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간절한 소원은 백두산대국의 승리의 상징이시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운명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입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열화같은 충정과 흠모의 한마음을 담아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옥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주체107(2018)년 4월 28일 일본 도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브라질 전 대통령인 국회 상원 외교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브라질 전 대통령인 국회 상원 외교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4월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에게 브라질국회 상원 의원대표단 단장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페르난두 폴로르위원장이 전달하였다.

또한 이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브라질국회 상원 의원대표단의 명의로 된 선물이 전달되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스위스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들을 지지하여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4월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는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였다. 또한 평화수호를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책임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우리는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결정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위대한 조선로동당 만세!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한편 이날 에찌오피아성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들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김영남동지가
브라질국회 상원 의원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는 4월 3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온 페르난두 폴로르 브라질 전 대통령인 국회상원 외교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브라질국회 상원 의원대표단을 만나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외무성 부상 허용복동지,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다

【평양 4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리용호동지의 초청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왕의동지가 곧 우리 나라를 방문하게 된다.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각하께

존경하는 각하

우리들은 인류공동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선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희세의 헌출위인들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심과 태양절을 인류사적인 날로 성대히 경축하려는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속에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와 인도네시아조선친선문화교류협회의 공동주최로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인도네시아 쟈까르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아시아태평양지역 인터네트토론회 《조선과 영광스러운 70년의 발전력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습니다.

토론회를 통하여 우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과 발전에 쌓아올리신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 김정은각하의 거대한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으며 나라의 자주권수호와 부강번영을 위한 조선인민의 력사적이며 영웅적인 투쟁에 대하여 세계의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알게 되였습니다.

어제날의 식민지약소국이 그토록 짧은 기간에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갖춘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고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자주의 기치높이 강성번영의 활로를 열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였으며 오늘은 세계가 공인하는 당당한 전략국가의 지위에 오른것은 오직 헌출위인들을 수령으로 모신 조선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기적중의 기적입니다.

특히 최근년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적대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제재봉쇄책동속에서도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만리마속도로 비약하며 전진하는 모습은 국제사회의 더없는 찬탄을 자아내고있습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을 일관하게 구현해온 조선의 국가건설경험과 성과는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새 사회건설을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의 본보기로 되고있습니다.

우리들은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의 숭고한 애국념원, 강국념원이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 각하의 대범하고 주동적인 제의와 조치, 정력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의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고있는데 대하여 더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각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승리와 번영의 년대기들에 아로새겨진 영웅조선, 천리마조선, 주체조선이라는 자랑차고 훌륭한 무름들과 더불어 귀국의 앞날은 더욱 밝고 창창할것입니다.

우리들은 앞으로도 헌출위인들에 대한 흠모심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조선인민의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각하께서 건강하시고 뜻깊은 올해에 나라의 번영과 통일을 위한 중요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실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아시아태평양지역 인터네트토론회 《조선과 영광스러운 70년의 발전력사》 참가자일동

2018년 4월 15일 쟈까르따

《조선과 영광스러운 70년의 발전력사》
아시아태평양지역 인터네트토론회 인도네시아에서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의 쟈까르따에서 4월 10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아시아태평양지역 인터네트토론회 《조선과 영광스러운 70년의 발전력사》가 진행되였다.

토론회와 관련하여 개설된 웨브싸이트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희세의 헌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주체조선의 자랑찬 발전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 등이 올랐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여러 나라 인사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부서기장인 인도네시아조선친선문화교류협회 서기장 페구 쌀또싸가 기조보고를 하였다.

그는 자주시대의 영원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하시여 우리 나라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로 빛내여주시였으며 온갖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자주성실현을 위해 떨쳐나선 세계피압박인민들의 투쟁에 불심량면의 지지성원을 보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여 우리 공화국을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다지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상상을 초월하는 시련과 난관속에서 조선이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의 빛나는 승리로 된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각하께서는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였으며 오늘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자주의 기치를 변함없이 고수해나가도록 조선인민을 이끌고계신다.

하기에 조선은 권위있고 강위력한 나라로 만방에 위용떨치고있다.

한마디로 조선의 력사는 자주로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력사이며 이로 하여 세상사람들이 존엄높은 주체조선을 찬양하고 지지옹호하는것이다.

헌신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온 사회의 일심단결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 막강한 국방력을 가지고있는 조선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전행로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세계에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릴 사회주의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확신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은 조선인민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이어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 피터 우즈, 네팔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씨. 피. 마이날리,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필리핀련대성위원회 위원장 라파엘 마리아노, 만마동종의학과학연구소 소장 턴 룬, 전인디아조선친선협회 서기장 쑤니트 쵸프라, 오스트랄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문화협회 전국서기장 레이몬드 퍼그슨 등이 토론하였다.

그들은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본보기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동방에서의 첫 인민민주주의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으며 세계《최강》을 떠들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으시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김일성주석이시야말로 세인이 공인하는 위인중의 위인,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다고 격찬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신 공화국은 김정일각하의 령도밑에 자기의 불패의 생명력과 무궁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고 하면서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업적을 찬양하고 사회주의조선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김정일각하께서는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절세위인들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을 충직하게 계승해나가시는 김정은각하를 높이 모신것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크나큰 행운이 아닐수 없다, 선대수령들의 뜻을 받들어 김정은각하께서는 온 사회를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으로 꾸려나가신다, 령도자와 인민이 혈연의 정으로 뭉쳐진 조선의 놀라운 현실은 세계를 감동시키고있다고 격정을 터치였다.

김정은각하의 세련된 령도밑에 조선은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에 들어서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 공화국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담보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데 대해 토론하였다.

그들은 김정은각하께서 계시여 사회주의조선의 앞날은 휘황찬란하다고 강조하고 그이의 헌출위인상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운동을 적극 벌려나갈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 설

전체 근로자들이여,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의 결정관철에 총매진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대비약을 일으키자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이 왔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모든 전선에서 경제건설대진군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시기에 맞는것으로 하여 올해 5.1절은 더욱 의의깊은 날로 되고있다.

지금 전체 근로자들의 가슴가슴은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의 결정관철에 총매진하여 우리 국가의 창건일흔돐을 가장 성대히 경축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합니다.》

당의 구상과 결심을 실천으로 받들어나가는것은 주체조선근로자들의 자랑스러운 투쟁기풍이며 창조본때이다.

우리 근로자들은 수령의 사상과 권위를 절대적으로 옹위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하는 길에서 빛나는 위훈의 자욱을 아로새겨왔다. 해방후 새 조국건설시기와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 사회주의건설시기를 비롯하여 우리 혁명의 년대들마다에는 억센 강철기둥으로, 높은 알곡증산과 과학연구성과로 당의 구상과 의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온 전세대 근로자들의 투쟁정신이 맥박치고있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과 시련의 나날에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사회주의제도를 결사수호한 투철한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들이 영웅조선의 근로자들이다. 우리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당의 사상과 로선은 과학이고 승리였으며 당의 구상과 결심은 곧 빛나는 실천이였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도 우리 근로자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지펴올리며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다. 주체조선의 앞길에 펼쳐진 위대한 강국의 새시대는 결코 하늘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라 백전백승 조선로동당과 전체 인민의 혼연일체가 안아온 력사의 필연이다. 당의 령도따라 백두의 행군길,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전진해나가는 전체 근로자들의 불같은 충정과 애국적열의는 우리 공화국이 자주와 사회주의의 성새로 빛을 뿌릴수 있게 하는 원천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도 당의 사상과 뜻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헌신분투한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개와 영웅적투쟁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오늘 우리 당은 일편단심 당을 따라 만난시련을 웃으며 헤쳐나가는 강의한 인민의 진정어린 모습에서 크나큰 힘을 얻고 미래를 락관하며 조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고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새로운 전략적로선에는 당의 부름이라면 산악같이 떨쳐나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어려있으며 자체의 힘으로 기어이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려는 확고부동한 의지가 응축되여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향한 오늘의 총공세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며 당의 의도대로 경제건설대진군을 힘있게 벌려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오는 길이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높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이다.

전체 근로자들은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을 깊이 간직하고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 총매진함으로써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주체조선근로자들의 영웅적기상을 힘있게 떨쳐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우리 인민의 운명이고 미래이시며 주체조선의 백전백승의 기치이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이끄시기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이 빛나는 현실로 꽃펴나고 민족의 앞길에 찬란한 미래가 펼쳐지고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고결한 충정을 지니고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권위를 결사보위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라면 기쁨도 시련도 영광이라는 고결한 인생관,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당중앙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려는 충정의 일편단심이 우리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꽉 차넘쳐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해나가는 참된 동지, 전우가 되여야 한다.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미래에 대한 락관을 지니고 삶의 순간순간을 값높은 충정과 위훈으로 수놓아가야 한다. 혁명의 년대들마다 마치와 낫과 붓대로 당의 사상과 로선을 결사관철하여온 전세대 근로자들의 충실성의 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가야 한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오늘의 혁명적인 총공세에 끊임없는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주체조선의 근로자들은 절세위인들의 슬하에서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혁명사상을 배우고 자력자강으로 만난시련을 헤쳐온 불굴의 투사들이다. 자력갱생은 우리 인민의 변함없는 투쟁방식이며 자력갱생에 애국이 있고 참다운 번영이 있다.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새로운 혁명적로선에 관통되여있는 근본핵, 기본원칙은 자력갱생이다. 우리는 오직 자력갱생, 견인불발함으로써 번영의 활로를 열고 훌륭한 미래를 앞당겨나가야 한다.

전체 근로자들은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을 과감히 벌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생산을 정상화하고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여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여야 한다.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맏아들답게 자력갱생대진군의 전렬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에네르기와 설비, 원료, 자재들을 적극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의 근로자들은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려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기어이 완수하여야 한다. 경공업과 수산, 건설부문의 로동계급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황금해의 새 력사를 끝없이 빛내이고 건설의 대번영기를 줄기차게 이어나가야 한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건설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당과 혁명을 옹위하고 우리의 위업을 전진시키는데서 과학기술전선이 제일척후전선이라면 과학자, 기술자들은 그 주력군이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심장에 새기고 사회주의건설의 개척자, 선도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탐구전, 창조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관건적인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경제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동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떠메고나갈 과학기술인재를 더 많이 키워내는것이 중요하다. 교육부문에서는 교원진영을 강화하고 교원들의 자질과 책임성을 결정적으로 높여 우리 나라에 인재가 바다를 이루게 할데 대한 당의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한다.

모든 근로자들은 과학기술을 모르면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는것을 뼈에 새기고 언제 어디서나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실현의 주인공, 집단이 떠받드는 발명가, 창의고안명수가 되여야 한다. 누구나 지역별, 부문별, 단위별과학기술보급거점들에서 지식의 탑을 높이 쌓으며 원격교육체계에 망라되여 실천가형의 인재로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온 나라에 집단적, 련대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나라의 인적, 물적자원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사회주의경제를 일떠세워야 하는 오늘의 총공세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본위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집단주의위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천리마대고조시기에 발휘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이 이 땅 그 어디에나 차넘쳐야 한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고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진행하여 누구나 만리마시대의 기수가 되고 어디서나 전형단위가 배출되게 하여야 한다. 일군들과 기술자, 생산자대중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체적지혜와 힘을 합쳐 있는 설비와 로력, 자재를 가지고 더 많은 물질적부를 창조하여야 한다. 사회와 집단, 혁명동지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훌륭한 미풍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야 한다.

근로자들이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경제건설대진군에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해나가도록 하자면 당조직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에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의 진수와 정당성, 시대적사명감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한다. 누구나 실질적인 경제건설성과로 당중앙의 권위를 옹위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해나가도록 그들의 심장에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북돋아주어야 한다. 선전선동수단과 력량을 총동원하고 참신하고 실효성있는 선전선동으로 전투장들에 혁명적기백과 애국적열정이 나래치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에서는 모든 일군들이 뚜렷한 계획과 왕성한 일욕심, 치밀한 작전과 박력있는 지휘로 대중을 경제건설대진군에로 이끌어나가도록 잘 도와주어야 한다. 일군들이 혁명적군중관점을 지니고 늘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며 대중의 힘을 발동하여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어야 한다. 일군들속에서 본위주의와 요령주의, 관료주의와 수입병을 비롯한 그릇된 사업방법과 일본새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전체 근로자들이여, 모두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 총매진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대비약을 일으켜나가자.

우리 근로자들이 안겨사는 위대한 품

온 나라 인민이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을 맞이한다.

이날을 맞으며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한 온 나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우리 나라를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하고 인민의 자주적리상과 행복을 꽃피워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을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편단심 당을 따르고 옹위하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밀려 전진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둘러보면 근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본의 착취대상으로 치부되고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근로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힘있는 담당자로, 창조와 건설의 믿음직한 주인으로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다.

이런 자랑스러운 현실이 과연 어떻게 펼쳐질수 있었던가.

위대한 수령만이 훌륭하고 충직한 근로인민의 대집단을 키울수 있다.

돌이켜보면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했던것이 나라없던 지난날 근로하는 우리 인민들의 처지였다.

항일대전의 나날 유능한 정치공작원들을 국내의 여러곳에 파견하시여 천대받고 압박받던 로동자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을 의식화, 조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고 조국해방을 위한 전민항쟁의 앞장에도 그들을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

해방후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기여할데 대한 구호를 제시하시고 온 나라 인민들을 새 조국건설에로 불러일으키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나라의 주인, 공장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하늘같은 믿음으로 하여 우리 근로자들은 극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할수 있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취와 억압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자기의 지위와 힘에 대한 긍지에 넘친 노래소리높이 건국사업에 뛰여들었던가.

장하고나 우리들은 힘찬
　근로자
새 세기를 창조하는 승리의
　주인
…

지금도 조용히 귀기울이면 노래 《승리의 5월》을 힘차게 부르며 전국의 마치소리 높이 울려가던 우리 근로자들의 자랑찬 모습이 눈앞에 선히 안겨오는듯싶다.

우리 로동계급에 대한 하늘같은 믿음으로 전후 어려웠던 시기 강선을 찾으시여 1만t의 강재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펼수 있다고 하시며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이 준엄한 난국을 타개해나가자고 하신 어버이수령님.

우리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불타는 충정으로 강선의 로동계급은 6만t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편을 밀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믿음의 손길에 떠받들려 온 나라 인민은 산악같이 일떠서 소극과 보수를 불사르며 《천리마》호뜨락또르와 《승리-58》형자동차, 굴착기와 불도젤을 만들어냈으며 두줄기 궤도우에 전기기관차의 기적소리도 높이 울리였다.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겨 나라의 역군으로 자라난 우리 근로자들의 투쟁과 생활의 갈피에는 또 얼마나 감동깊은 령도의 손길, 사랑과 믿음의 서사시가 아로새겨져있던가.

정녕 잊을수 없다.

조국앞에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던 그 나날 북방의 눈보라를 헤치시며 자강땅의 인민들을 찾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상을.

20년전 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타신 야전차가 장강1호발전소로 가는 길에 들어섰을 때였다.

차창에는 예상치 않았던 행렬이 비껴들었다.

손달구지며 쪽발구, 썰매 등에 거름을 가득 싣고가는 끝간데없는 행렬…

그들은 강계시내의 로동자, 사무원들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귀중한 혁명시간이 지체되는것으로 하여 운전사의 얼굴에는 안타깝고 초조한 기색이 비끼였다.

차체를 스칠듯 지나가는 인민들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없습니다, 인민들과 함께 가면 됩니다, 인민들과 나란히 강행군을 하는것이 좋습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당을 따라 만난을 헤치며 나아가는 신념의 대오를 뜨거운 감동속에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저런 인민들과는 하늘땅 끝까지라도 함께 갈수 있습니다.

인민들과 하늘땅 끝까지!

그것은 우리 인민에 대한 절세위인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였다.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우리 인민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영광이였다.

그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계정신에 대하여 그리도 귀중히 여기시고 어려울 때마다 자강도의 근로자들을 찾아 사회주의수호전의 앞장에 내세워주신것 아니던가.

자강도뿐이 아닌 성강과 강선, 과학연구기지들과 사회주의협동벌들을 비롯하여 우리 근로자들이 있는 그 어디에나 이런 감동깊은 사연들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우리 인민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의 표시가 오늘도 우리의 심장을 쿵쿵 높뛰게 한다.

우리 인민은 참으로 좋은 인민이다. 우리 인민처럼 훌륭한 인민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우리는 인민복을 누리고있다. 우리가 지금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대결속에서 사회주의를 튼튼히 지켜나가고있는것은 훌륭한 인민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그 믿음, 그 사랑이 있어 우리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그처럼 간고하였던 시기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나라와 공장을 먼저 생각하며 기대곁을 떠나지 않았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도 지펴올리였으며 사회주의협동전야에 황금벌의 새 력사를 펼쳐놓을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품들여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신 우리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력사는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더욱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들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고찾으신 수많은 단위들, 그 자욱마다에 꽃핀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들은 그 얼마이던가.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비행기인데 자신께서 타보아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좋아할것이며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라고 하시면서 몸소 시험비행의 하늘길에도 서슴없이 나서신 우리 원수님,

하늘같은 그 믿음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심장마다에 자력자강의 불길을 지펴주시며 가로막는 난관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뚫고나가도록 이끌어주신 하많은 일화들중에는 우리의 지하전동차 1호에 대한 가슴뜨거운 사연도 전해지고있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하전동차의 시운전과정을 직접 료해하시기 위해 깊은 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개선역에 나오실줄 그 누가 알았던가.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와 련관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들이 합심하여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의 시운전을 해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우리의 주체적력량과 과학기술에 의거하면 무엇이든 다 만들수 있다는 신심으로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세상이 밝아지도록 환히 웃으시였다.

못 잊을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우리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심장으로 절감한것은 무엇이던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혁명의 준엄한 폭풍을 헤쳐온 조선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정신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는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이였다.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심으로 충만된 인민의 힘은 그 무엇으로도 꺾지 못한다.

전세대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이어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을 떨쳐가는 우리 근로자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보라.

당이 제시한 새형의 뜨락또르와 화물자동차생산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한 기계공업부문의 로동계급, 우리의 멋, 우리의 향기가 넘치는 다종다양한 인민소비품들을 펑펑 생산해내고있는 경공업부문의 로동계급, 첨단과학연구성과로 부강조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해나가는 과학자들, 이 땅에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기 위한 일념으로 애국의 자욱을 새겨가는 농업근로자들…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서 절세의 위인들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은 이렇듯 우리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을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의 창조자, 시대의 영웅들로 키우는 힘의 원천이다.

우리 원수님께서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를 비롯한 대회들이 성대히 진행되도록 이끌어주시고 몸소 대회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들은 그대로 온 나라 근로자들의 마음속에 신념의 기둥,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간직되여있다.

하기에 지금 온 나라 각계층 근로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무엇이 두려우랴, 무엇을 못해내랴.

우리에게는 인민을 하늘높이 떠받드시며 위대한 사랑으로 온 나라 근로자들을 기적창조에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신다.

우리에게는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지닌 인민대중과 당이 키워낸 과학자, 기술자진영이 있고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는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다.

영원토록 무궁번영할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찬란한 미래를 위해 인민이여 신심과 락관에 넘쳐 용기백배 떨쳐나서자.

번영의 활로를 열고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오늘의 장엄한 투쟁에서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다시한번 만방에 떨치자.

본사기자 채히성

인민의 행복에서 찾으신 기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였습니다.》

언제인가 자강도의 한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산현장을 돌아보실 때였다.

한 선반공청년이 문득 기대를 멈춰세우더니 위대한 장군님 앞으로 한걸음 다가섰다.

그이께서는 물론 동행한 일군들도, 함께 일하던 로동자들도 영문을 알수 없었다.

선반공청년은 위대한 장군님께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나서 격정에 젖은 목소리로 닭고기와 닭알을 보내주시여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리였다.

그 선반공청년이 위대한 장군님께 이렇듯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게 된데는 뜨거운 사연이 있었다.

나라가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자강도인민들을 위해 현대적인 닭공장을 건설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새로 건설된 닭공장에서 첫 생산물이 나왔을 때에는 외국방문의 길에서 몸소 공급대책까지 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이렇게 되여 청년의 집에서도 많은 닭고기와 닭알을 공급받게 되였던것이다.

자애로운 눈길로 선반공청년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래, 그렇다면 자신께서도 정말 기쁘다고 하시며 환히 웃으시였다.

기대소리때문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청년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기에 그처럼 기뻐하시는지 알수 없었던 일군들은 서로 마주보기만 하였다.

이때 일군들쪽으로 돌아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반공청년을 가리키시며 이 동무가 새로 지은 닭공장에서 나오는 닭고기와 닭알을 먹는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다고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순간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시면 누구나가 꼭 아뢰고싶었던 진정이였고 올리고싶은 감사의 인사였기때문이였다.

한 일군이 그이께 인민들에게 닭고기와 닭알을 거저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공급해주고있는데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강도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느라 저녁늦게야 숙소로 돌아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요즘은 밤을 새워가며 일해도 피곤한줄 모르겠고 오히려 힘이 솟는것 같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 공장을 돌아볼 때 나이어린 선반공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기대를 세우고 다가와 닭고기와 닭알을 보내주어 고맙다고 인사하는 말을 듣고 로동자들을 위하여 닭공장을 지어주기를 정말 잘하였고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한 선반공청년이 올린 소박한 인사말속에서도 커가는 인민의 행복을 느끼시며 거기에서 더없는 기쁨을 찾으시는 위대한 장군님.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속에서는 이런 심장의 목소리가 울리고있었다.

(우리 인민이 누리는 모든 행복은 위대한 장군님의 천만고생과 맞바꾼것입니다.)

본사기자 강원남

기업소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새겨가고있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한없이 다심한 어버이사랑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문제가 있다.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

우리 원수님의 그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높이 받들자면 어떻게 사고하고 실천하여야 하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들의 운명을 지켜주며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내온 한 상점을 돌아보시였다.

상점안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한 매대에 이르시여 문득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러시더니 일용잡화매대에 있는 안경을 보지 못하고 지나쳐왔는데 다시 가보자고 하시며 안경진렬대앞으로 되돌아가시였다.

각종 색안경과 도수안경들이 일매지게 꽂혀있는 진렬대에서 안경을 뽑으시던 그이께서는 무엇인가 잠시 생각하시였다.

(왜 그러실가?)

일군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그러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안경진렬대가 안경을 뽑기 불편하게 되여있다고, 안경진렬대는 빙빙 돌아가게 만들어놓아야 손님들이 안경을 고르기 더 편리할것이라고 이르시였다.

이윽하여 몸소 색안경을 끼여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상점일군에게 어디서 거울을 볼수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가까이에 있던 한 판매원이 거울을 가지러 다른 매대로 달려갔다.

이윽고 거울을 받아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안경을 파는 매대에는 거울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손님들이 안경을 낀 자기의 모습을 볼수 있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워올랐다.

화장품매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매대에 진렬되여있는 향수들을 보아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화장품매대에 향수냄새를 맡아볼수 있게 작은 숟가락같이 생긴 종이를 꼭 놓아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거기에 향수를 쳐서 냄새를 맡아보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전기용품매대에 들리시여서는 각양각색의 선풍기들을 보아주시면서 손님들이 상품을 살 때 동작원리를 물어볼수 있으므로 그들에게 알려줄수 있게 판매원들이 상품들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있을데 대한 문제까지도 일일이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참으로 우리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이 리용할 모든것에 대하여 그처럼 관심이 높으시였고 무엇을 하나 보고 대하시여도 그것을 리용할 인민의 립장에 서시는것이였다.

하나를 주면 열, 백을 더 주고싶어하는 어버이의 다심한 심정으로 인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에서 어느 한구석도 미흡한 점이 없도록 세심히 보살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은 일군들에게 이렇게 새겨주고있었다.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자면 언제나 인민들의 립장에 서서 모든것을 보고 대하여야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 과학자들을 위하여 일떠선 미래상점이 전하는 사랑의 일화이다.

본사기자 정순학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제 힘을 믿으면 길이 열린다

사리원철도분국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사회주의경제전선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지금의 현실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것을 요구하고있다.

하다면 오늘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 거창한 진군길에서 어떤 위훈의 자욱을 아로새겨야 하는가.

사리원철도분국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이 이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모두가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하고 결사관철하는 당정책의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근 사리원철도분국에서는 콩크리트혼합물자동운반기, 전자갈자동운반기, 무선조종에 의한 운전체계가 도입된 천정기중기 등 자동화된 설비들로 새로운 무볼트식콩크리트침목생산기지를 꾸려놓았다. 그리하여 철도현대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정책관철에서 큰 성과를 거둘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놓았다.

이것은 자기 단위의 사업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불같은 각오를 안은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혁명적인 일본새가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여러해전의 일이다.

분국안의 여러 철길구간을 돌아보며 철길상태와 역들의 형편을 료해하던 책임일군의 마음은 무거웠다. 철길구간에 나무침목이 적지 않게 깔려있었고 당장 교체하지 않으면 언젠 침목들도 적지 않았다.

여러가지 조건이 있었지만 일군들은 철길상태를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적인 문제들을 탐구하였다. 그들은 철길에 콩크리트침목을 깔아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자체의 콩크리트침목생산기지를 일떠세울 대담한 작전을 펼치게 되였다.

사실 이 생산기지를 일떠세우는것은 많은 로력과 설비, 자재를 요구하는 아름찬 일이였다.

특히 침목생산과 철길고착물 생산설비를 마련하는것이 제일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날 사리원역화차대에 내려갔던 분국의 책임일군은 그곳에 못쓰게 된 300t유압프레스가 있는것을 보게 되였다.

순간 그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저런 설비들을 살려내는 방법으로 절린 문제를 해결할수 있지 않겠는가.)

며칠후 분국에서는 일군들의 협의회가 열리고 설비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이 세워졌다.

일군들은 분국안의 기술적잠재력과 내부예비를 총동원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면서 앞장에서 돌격로를 열어나갔다.

설비와 자재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리 밤길에도 나섰고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풀 방도를 찾아 시간을 쪼개가며 과학기술도서들을 탐독하기도 하였다. 기술일군들과 진지한 토론을 벌리며 새운 밤은 그 얼마인지 몰랐다.

일군들이 앞재를 메고 달리면서 기술자, 기능공들을 우대하고 그들을 적극 떠밀어주니 성과는 눈에 띄게 나타났다.

못쓴다던 300t유압프레스를 비롯한 여러 설비들이 원상복구되였다. 그 나날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추켜든 대중의 정신력은 더욱 앙양되였다. 온 분국이 설비제작전투로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였고 일터마다에서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의 하루하루가 흘렀다.

침목생산기지의 천정기중기를 만들 때였다.

설계와 도면은 물론 만들려는 천정기중기를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였다. 더우기 천정기중기를 만들 과업을 맡은 장천객화차대의 물질기술적토대는 씨원치 못하였다. 그러다나니 이곳에서는 제작전투의 방향조차도 종잡지 못하고있었다.

하지만 분국의 일군들은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않았다. 일이 힘들고 조건이 어려울수록 현실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 방도를 찾고 대중을 투쟁에로 이끌었다.

때로는 일군들자신이 며칠밤을 밝히며 찾아낸 착상을 뒷받침해주고 종업원들과 함께 걸싸게 일손을 다그치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하기에 이 과제를 맡은 장천객화차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 시기 엄두도 내지 못하던 천정기중기제작을 자체로 해내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비단 천정기중기뿐이 아니다. 콩크리트혼합기와 플라즈마절단기를 비롯한 여러 중요설비들도 다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하나하나가 합쳐져 콩크리트침목생산기지라는 자력자강의 창조물이 태여나게 되였다.

이런 투쟁속에 마련된 침목생산기지에서 사리원철도분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해 1만수천정의 침목을 생산하고 침목생산에서 철도성적으로 앞자리를 차지하는 영예를 지니였다. 그러나 분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을 몰랐다.

이들은 올해 1.4분기기간에 종전의 콩크리트침목생산기지를 또다시 현대화할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내세우고 줄기찬 투쟁을 벌려 단 몇달사이에 새로운 무볼트식콩크리트침목을 생산할수 있는 자력갱생기지로 확고히 전환시키였다.

우리는 여기에 그 나날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진장한 전투를 벌린 류만형, 김선익동무를 비롯한 분국의 일군들과 단 한달동안에 지난 시기의 콩크리트침목생산형틀을 모두 새롭게 개조함으로써 전격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콩크리트침목생산중대 전투원들의 위훈 등을 다 전하지 못한다.

하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만장약하고 당정책결사관철의 기풍을 높이 발휘할 때 어디서나 기적과 혁신이 창조된다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신념의 목소리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한다.

그렇다. 제힘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개척자들은 반드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기마련이다.

지금 사리원철도분국안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우리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김 국 철

탈류제 자체로 생산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산화철정밀탈류제를 자체로 만들어 생산에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 생산설비와 계통을 제때에 정비보수하고 생산능력을 확장하며 촉매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주체비료와 비날론, 기초화학제품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합니다.》

이 산화철정밀탈류제는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것보다 원가가 적게 들고 류화수소흡착력이 높을뿐아니라 비료생산설비의 부식을 막을수 있게 하는 효률높은 탈류제이다.

자체로 만든 산화철정밀탈류제의 생산도입은 탈류제를 수입하지 않고도 비료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의의있는 과학기술성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흥남비료련합기업소는 우리의 기술과 힘, 우리의 원료에 의하여 현대적기술로 장비되고 완리운영되는 자립적인 대규모화학비료생산기지로 전변되였다.

국내자원에 의거하는 새로운 화학제품생산기지들을 전망성있게 건설할데 대한 당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탈류제를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로 해결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웠다.

일반적으로 탈류제는 카스중의 류화수소를 흡착하는 물질로서 생산정상화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그런것으로 하여 탈류제는 비료생산에서 없어서는 안될 물질로 리용되고있다.

비료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촉매연구소의 기술자들은 련합기업소일군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밑에 우리 식의 탈류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사업에 자기들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어느 한 광산에서 나오는 침전물을 리용하여 탈류제를 얻어내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였다.

경험도 없었지만 기술자들은 하자고 결심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탈류제를 우리의 원료를 가지고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사업에 전심하였다.

우리의 기술, 우리 힘과 지혜로 얼마든지 만들어낼수 있다는 열의에 넘쳐 피타는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던 끝에 그들은 탈류제를 얻어내는데 성공할수 있었다.

이 탈류제는 생산원가가 적게 드는것은 물론이고 류화수소흡착력이 높은것으로 하여 설비부식을 막을수 있다는것이 실천적으로 확증되였다.

생산에 도입한 결과 자체로 만든 탈류제가 수입산 탈류제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한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거둔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는 비료생산에서 혁신을 이룩하기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창조된 또 하나의 자랑찬 결실이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주체비료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지 혁 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도입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에서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결사관철할 일념안고 떨쳐나선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과학기술에 의거한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형의 화물자동차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혁신전투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올해에 새형의 화물자동차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첨입식사상공세를 진공적으로 벌리면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나갈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기본정신을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새형의 화물자동차생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풀기 위한 투쟁에 용약 떨쳐나섰다.

특히 화물자동차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며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치는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그 실현을 위한 탐구전, 창조전을 벌리고있다.

기술발전과의 기술자들은 세척공정을 새롭게 꾸리고 여러가지 설비들을 제작도입하여 화물자동차의 기관생산을 보다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행할수 있게 하였으며 구상혹연주철을 리용하여 크랑크축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준비도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있다.

이들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밑에 수십종에 달하는 새로운 부속품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3대혁명소조원들의 투쟁도 적극 떠밀어주어 성과를 거두도록 하고있다.

책임자 최경호동무를 비롯한 3대혁명소조원들은 새형의 화물자동차의 부속품제작에 필요한 많은 지구, 장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는 등 20여건의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금형주조방법을 받아들여 제품의 제작속도와 질을 높이고 수지송풍날개를 비롯한 여러가지 부속품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제작함으로써 지난 시기보다 제품가공시간과 자재소비를 훨씬 줄일수 있게 하였다.

련합기업소의 당, 행정일군들은 기술자, 기능공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속에서 이룩되고있는 기술혁신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짜고들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하고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당이 제시한 새형의 화물자동차생산과제를 훌륭히 수행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련합기업소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의하여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명 춘 길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한길로

룡담세멘트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

룡담세멘트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강력제일주의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입니다.》

지난해 수만t의 질좋은 세멘트를 생산하여 도내 중요대상공사장들에 보내준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받들고 더욱 기세를 올리고있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지난 투쟁의 나날을 통하여 자력갱생의 위력을 절감한 이들이다.

최근 공장의 생산활동과정에 가장 절박하게 나선것은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는 문제였다. 사실 창립초기부터 가동해오고있는 설비들이 대다수를 이루는 공장의 조건에서 세멘트생산을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자면 결정적으로 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했다.

최영남지배인은 실무수준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들로 기술혁신조를 무어 생산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풀어나갈것을 결심하였다.

도당위원회에서도 그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공장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은 차성만동무를 비롯한 오랜 기술자들을 망라하는 기술혁신조를 조직하고 그들이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기술혁신조성원들은 현장에서 시급히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들을 맡아안고 두뇌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이들이 처음 맡은 과제는 원료직장의 천정기중기원상복구였다. 직장에 있는 2대의 천정기중기가운데서 한대가 고장으로 가동하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배인은 기술혁신조성원들을 믿고 고장난 천정기중기를 살릴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불과 몇명밖에 안되는 인원으로 집채같은 천정기중기를 수리해낸다는것은 보통의 상식으로는 거의나 불가능하였다. 본체에 설치해야 할 목재의 수는 무려 수십개, 수리해야 할 전동기와 감속기를 비롯하여 작업량은 대단히 방대하였다.

더우기 난문제로 된것은 제어기를 비롯한 전기설비들을 자체로 제작하는것이였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것은 다 자체로 만들어도 제어기만은 다른 단위에서 구입해오자고 하였다. 그러나 공장조건에서 제어기를 구입해온다는것은 사실 말처럼 쉽지 않았다.

기술혁신조성원들은 제어기문제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 대담한 결심을 내렸다.

조건이 불리하다고 주저앉으면 지도모르는 사이에 패배주의자로 된다.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뚫고 보다 큰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자신들의 투쟁성과에 공장의 생산정상화를 위한 돌파구가 있다는것을 자각한 기술혁신조성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나갔다.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가며 제어기제작에 리용할 지구, 장비들을 만들기 위해 이들이 지새운 낮과 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성과에서는 경험을, 실패에서는 교훈을 찾으며 한걸음한걸음 전진해나가던 과정에 이들은 자력자강의 정신력만 있으면 못해낼것도 두려울것도 없다는것을 절감하게 되였다.

이 나날 4대에 달하는 제어기가 공장자체의 힘으로 제작되였다. 결과 원료직장의 2호천정기중기는 짧은 기간에 원상복구되였으며 공장의 생산토대는 더욱 강화되게 되였다.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이곳 기술혁신조성원들은 부단히 새로운 일감을 찾아쥐고 계속 줄기찬 투쟁을 벌려나갔다.

이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철관교정기를 제작해내고 고장으로 멎어서있던 압연기를 원상복구함으로써 소성로보수작업에 리용되는 수만장에 달하는 쇄기철판들을 전부 공장자체로 보장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또한 못쓰게 되였던 용접기를 자체의 힘으로 수리해낸것을 비롯하여 기술혁신조가 조직되여 거둔 성과는 실로 적지 않다.

이들의 투쟁성과에 고무된 공장의 전체 종업원들도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높이 창조투쟁, 돌격투쟁을 힘차게 전개해나갔다.

리성혁동무를 비롯한 자동화작업반의 로동자들은 해당 부문과학자, 기술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소성공정과 원료배합공정을 비롯한 생산공정의 자동조종을 실현하는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나갔다. 이와 함께 각종 배전함들을 자체로 만들어 공정별작업의 안전성과 로동생산능률을 훨씬 높이였으며 앞선 기술을 받아들여 산소수소발생기의 정상가동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우리는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이다.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이런 투철한 각오를 심장마다에 만장약하고 도안의 중요대상공사장들에 보내줄 세멘트생산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심 학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총련 효고일군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4월 30일 총련 효고일군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사회주의조국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시였으며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태양절경축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폐막

태양절경축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되였다.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우리 인민과 체육인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4월 2일에 개막된 경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정시에 련마해온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경기대회에서 4.25체육단,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 압록강국방체육단, 룡남산체육단, 압록강체육단 남, 녀선수들이 력기, 사격, 수영, 륙상종목들에서 공화국 새 기록을 세웠다.

축구경기에서는 기관차체육단 남자선수들과 월미도축구단 녀자선수들이 각각 1등을, 리명수체육단 남자선수들과 평양체육단 녀자선수들이 각각 2등을, 소백수체육단 남자선수들과 압록강체육단 녀자선수들이 각각 3등을 차지하였다.

롱구경기에서는 4.25체육단 남, 녀선수들이 각각 1위를, 압록강체육단 남자선수들과 소백수체육단 녀자선수들이 각각 2위를, 기관차체육단 남자선수들과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체육단 녀자선수들이 각각 3위를 하였다.

배구경기에서는 4.25체육단 남, 녀선수들이 각각 1등을, 압록강체육단 남자선수들과 평양체육단 녀자선수들이 각각 2등을, 소백수체육단 남자선수들과 압록강체육단 녀자선수들이 각각 3등을 차지하였다.

폐막식이 4월 30일 청춘거리롱구경기관에서 있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휘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 시내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공화국 새 기록을 세운 선수들에게 메달이 수여되였다.

축구, 롱구, 배구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단체들과 선수들이 우승컵과 메달을 수여받았다.

폐막사를 체육상 김일국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이번 경기대회가 주체체육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혁명적인 총공세로 경제전선대진군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한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모든 선수들과 감독들, 일군들이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혁신적성과들을 이룩함으로써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더 많은 금메달로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수리아정부경제대표단을 위한 연회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수리아정부경제대표단을 위하여 4월 30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마우문 함단 재정상을 단장으로 하는 수리아정부경제대표단이 초대되였다.

대외경제상 김영재동지, 관계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바샤르 알 아싸드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과 수리아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일군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정희철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일군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유서깊은 태양의 성지를 찾은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가분들의 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돌아보았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를 방문할 때마다 절세위인에 대한 흠모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된다.

김일성대원수님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총련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겠다.

대표단은 이밖에 국가선물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중앙계급교양관, 평양교원대학 등을 참관하였다.

제14차 전국기계설계축전 개막

제14차 전국기계설계축전이 개막되였다.

축전에는 전문설계기관, 교육, 과학연구기관을 비롯하여 110여개 단위의 설계가, 교원, 연구사, 기술자, 3대혁명소조원들이 참가하였다.

기계공장들의 현대화를 다그치며 전력, 석탄, 금속, 화학, 기계,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600여건의 기계설비설계, 기계제품형태도안들, 설계지원프로그람들이 축전에 출품되였다.

축전기간 설계의 과학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차원설계경연, 현상모집이 있게 되며 기계설계발전추세에 대한 강의와 첨단설계자료, 전시품들에 대한 기술교류도 진행된다.

개막식이 4월 30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있었다.

내각부총리 김덕훈동지, 기계공업상 리종국동지, 관계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사를 김덕훈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나라의 기계설계기술이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모든 참가자들이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의 대통로를 열어나갈데 대한 당의 승고한 뜻을 받들어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선진과학기술과 설계방법을 적극 도입하기 위한 교류를 다방면적으로 벌려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축전장을 돌아보았다.

농촌기계화초병의 영예를 안고

은파군 류정협동농장 제1작업반에는 농장원들로부터 《기계박사》라고 불리우고있는 뜨락또르운전수가 있다.

그가 바로 40여년을 하루와 같이 뜨락또르의 관리와 운전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가고있는 운전수 리용진동무이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뜨락또르정비를 제때에 해놓는것을 어길수 없는 생활의 일과로, 준칙으로 삼아온 그는 지난 기간 뜨락또르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농업생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농촌기계화초병의 영예를 안고 새 세대 뜨락또르운전수들도 많이 키워내고있는 그에게 있어서 뜨락또르는 전투무기나 다름이 없다.

뜨락또르의 관리에서 막힘이 없는 그는 농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사람으로 집단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다.

오늘도 리용진동무는 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기 위해 뜨락또르와 함께 대오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본사기자

수리아정부경제대표단 도착

마우문 함단 재정상을 단장으로 하는 수리아정부경제대표단이 4월 30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대외경제성 부상 리명산동지가 맞이하였다.

재일본조선인의학협회대표단 도착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토론회에 참가할 강경부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의학협회대표단이 4월 30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의학협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혁동지가 맞이하였다.

총련 효고일군대표단 도착

김춘권 효고현본부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효고일군대표단이 4월 30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해외동포사업국 부국장 박혁동지가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전세대 로동계급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애국헌신의 자욱을 새겨간다

근로의 정신, 창조의 숨결로 높뛰는 심장

경성애자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맏아들답게 당의 사상과 위업을 맨 앞장에서 받들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추켜들고 나가야 합니다.》

경성애자공장에 혁신과 위훈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결사관철하고야말 이곳 로동계급의 억센 기상인양 공장의 드넓은 현장마다에서는 증산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있다.

영광의 그날을 심장에 새기고

경성애자공장 2애자직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말자취가 어려있는 영광의 일터이다.

이곳 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더 높은 애자생산성과로 받들어갈 의지가 끓어넘치던 지난 4월말 어느날 퇴근시간이 퍼 지난 때였지만 직장일군들인 장영남, 강성준동무는 심중한 기색을 띠운채 현장을 뜨지 못하고있었다.

《직장장동무, 금방 퇴근한 로동자들을 다시 불러낼수는 없습니다.》

《옳소. 우리 일군들이 직장앞에 맡겨진 긴급전투임무를 맡아 해제낍시다.》

방금전 그들은 공장참모부로부터 현행애자생산과제외에 큰 천개의 애자를 시급히 생산보장할데 대한 임무를 받았던것이다.

직장일군들과 여러 작업반초급일군들은 그 즉시 긴장한 전투에 들어갔다. 능숙한 솜씨로 애자성형작업을 하는 그들의 손끝에서는 불이 이는듯싶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불현듯 설비의 고르로운 동음을 짓누르며 떠들썩한 소리가 작업장에 울려퍼졌다. 당이 맡겨준 전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 현장에 달려나온 김인숙, 림동일동무를 비롯한 기능공들과 로동자들, 모두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속에 그날 2애자직장에서는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힘을 합쳐 천여개의 애자를 단 6시간동안에 생산해내는 혁신을 일으켰다.

영광의 일터를 지켜선 긍지드높이 맡겨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혁신적인 일본새는 비단 이들속에서만 발휘된것이 아니다.

어느날 강사1작업반에서 뜻밖의 사정으로 하루생산과제를 미달하게 되였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올랐던 작업반장 신미란동무를 비롯한 작업반성원들은 약속이나 한듯 다시 일터로 나와 기대를 돌리기 시작했다.

가정부인들인데 매일 봉창할 셈치고 집으로 들어가보라는 직장일군의 권고에 신미란동무는 이렇게 대답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뜻깊은 4월에 더 많은 애자를 생산해내겠다고 결의다진 우리들이 아닙니까.》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 높은 애자생산성과로 빛내이자!

이런 불타는 지향을 안고 경성애자공장 2애자직장의 로동계급은 경제강국건설의 전투장마다에 질좋은 애자를 더 많이 생산보장하기 위하여 날마다 새로운 혁신과 위훈을 창조해가고있다.

불가능이란 없다

뜻깊은 4월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마지막전투가 벌어지고있던 얼마전 고압기구청년직장앞에는 차단기 1대와 고압배전반 4대를 단 이틀동안에 생산해야 할 무겁고도 엉예로운 임무가 나섰다.

일반적으로 그만한 량의 전기설비를 생산하자면 적어도 열흘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조건과 환경이 어려워도 당이 맡겨준 전투과제앞에서는 순간의 동요와 주저도 모르는 고압기구청년직장 전투원들이였다.

설비제작기일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방도를 찾기 위해 온 직장이 떨쳐나선 가운데 조립2작업반의 오랜 기능공인 최양인동무가 전동장치를 비롯한 차단기부분품조립을 련속공정으로 전환시킬수 있는 기발한 착상을 내놓았다. 곧 조립작업반들에서 시간당 설비조립속도를 높이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가 시작되였다. 낮과 밤이 따로 없었다. 조립1,2작업반의 기능공들이 앞장에 서서 일감을 두룩, 세룩씩 맡아 해제끼는 속에 기능이 어린 조립공들도 이에 뒤질세라 맡은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썼다.

선반1,2작업반과 완성작업반을 비롯한 부분품가공을 맡은 작업반들도 마찬가지였다. 교대가 따로 없는 전투가 벌어지던 어느날 깊은 밤 완성작업반에서 여러대의 기대가 가동을 멈추게 되였다. 제품가공속도가 빨라지다보니 그만 소재가 바닥났던것이다. 조금만 일손을 다그치면 고압배전반부분품가공을 전부 끝낼수 있는지라 모두의 심정은 안타깝기만 하였다. 그때 등에 무거운 배낭을 진 기대공 리미옥동무가 작업반원들앞에 나타났다.

《동무들, 소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서둘러 배낭을 헤치고 커다란 소재덩어리를 내보이는 리미옥동무, 땀방울이 줄지어 흘러내리는 그의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한껏 어려있었다. 영문을 묻는 작업반장에게 그는 말했다.

《손때를 놓고 주지않아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내부에비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맡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바로 눈앞에서 보이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만이 아니였다. 종업원들모두가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부분품가공과제를 제때에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고압기구청년직장에서는 그토록 어렵게만 생각되던 설비제작전투를 이틀동안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차단기와 4대의 고압배전반, 물론 그것은 직장의 생산능력에 비해볼 때 많은 량은 아니다. 그러나 당의 부름앞에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 어떻게 화답해나서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소중한 설비들이였다.

오늘도 경성애자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구호를 심장마다에 간직하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헤치며 전력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 종류의 애자생산전투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리남호

벌목공의 위훈

화평림산사업소에서

벌목공들의 자랑찬 투쟁과 위훈을 알려면 겨울날의 산판을 찾아가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는 화창한 봄날에 새겨가는 벌목공들의 위훈을 전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지난 4월 화평림산사업소 혹수작업소가 맡고있는 해발 840여m의 채벌구역은 이른아침부터 법석 끓었다. 이곳에 도착한 벌목공들의 차림새는 류달랐다. 그들의 손에는 톱이나 도끼와 같은 채벌도구가 아니라 삽, 곡괭이들이 들려있었고 어깨에 멘 배낭속에는 애어린 나무모와 부식토들이 들어있었다.

《자, 또 심어보기요.》

이렇게 말하며 남먼저 곡괭이를 들어잡는 사람은 사업소지배인 김창남동무였다. 혹수작업소 소장 김경일동무와 벌목공들도 저마다 배낭끈을 풀었다.

한낮의 해빛이 깊은 산속의 대기를 훈훈하게 하는 정오가 되여서야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일손을 놓았다. 이마의 땀을 씻는 그들의 눈에 자기들이 금방 심은, 줄을 맞추어선 이깔나무모들이 정겨웁게 비껴들었다.

한 젊은 벌목공이 바람에 실레이는 이깔나무모의 작은 아지를 쓸어만지며 물었다.

《이 나무모가 목재로 되려면 얼마나 걸립가요?》

그러자 김창남지배인이 대답했다.

《아마 한 30년 걸리겠지. 우리 그때 가서 오늘을 긍지높이 추억하자구.》

벌목공으로 보람찬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떼였고 그 길에서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지배인의 이야기에 김병제, 서영철동무를 비롯한 오랜 벌목공들도 추억깊은 눈길로 북변의 이득한 산발들을 바라보았다.

겨울철 눈속에서는 아름드리 통나무들을 베고 봄, 여름, 가을에는 채벌위자리들에 사업소와 리발에서 키운 나무모들을 심고 가꾸어 벌목공들,

그들이 한생토록 떠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으로 보내준 나무는 그 얼마이며 정성껏 심어 거목으로 자래운 나무는 또 얼마인가.

김창남지배인은 우리와 만났을 때 이렇게 긍지높이 말했다.

《우리 벌목공들처럼 한생토록 많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람들도 드물것입니다.》

한그루를 베면 열그루, 스무그루를 심어온 벌목공들이다.

그들의 가슴마다에 조국을 사랑하고 숲을 사랑하는 애국정신을 깊이 심어주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예로부터 떠들이하는 처서군으로 불리우던 벌목공들이였건만 바로 그들이 국가의 주인, 산림의 주인, 목재의 주인, 림철의 주인이라고 하시며 과거의 낡은 습성을 버리고 주인된 립장에서 나무를 심고 베고 건설장에 보내는 사업에서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

그 간곡한 교시를 높이 받들고 천리마대고조시기 벌목공들은 채벌작업에서만이 아니라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서도 앞장섰다. 그날의 그 정신은 오늘도 꿋꿋이 이어지고있으며 산림조성사업을 자연과의 전쟁으로 선포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높은 뜻을 받드는 보람찬 투쟁에서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

화평림산사업소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지난해 자체로 키운 수십만그루의 나무모를 심고 가꾸어 그 사름률을 90%이상 보장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올해 년간 통나무생산계획을 지난 3월중순까지 앞당겨 끝낸 그들은 이렇듯 또다시 조국의 재부를 마련하는 산림조성사업에 떨쳐나선것이다.

벌목공의 위훈,

그것은 집채같이 쌓은 아름드리통나무더미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나날이 무성해지고 푸르러가는 조국의 수많은 산림들에 벌목공들의 남모르는 위훈, 그들의 가장 긍지높고 자랑찬 애국적위훈이 깃들어있음을 사람들이여 잊지 마시라.

본사기자 허명숙

전력증산의 동음을 지켜가는 사람들

순천화력발전소 자력갱생직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이어 누구나 시대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만리마선구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년전 3월 어느날 순천화력발전소 자력갱생직장의 어느 한 방에서는 용접봉심선교정절단기를 자체로 제작하는 문제를 놓고 심각한 론의가 계속되고있었다. 한번 만들어본적도 없는 설비를 어떻게 하면 자체로 제작하겠는가 하는 토의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열기를 띠였다.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였다. 지금 생산하고있는 용접봉으로 이때까지 설비보수를 해오지 않았는가. 무엇때문에 고생을 사서 하겠는가고 고개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 로동계급의 심장속에 간직된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을 현실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투쟁이였다. 그들이 굳이 용접봉심선교정절단기를 자체로 제작할 결심을 한데는 사연이 있었다.

그때 용접봉작업반에서는 로라식으로 된 절단기로 용접봉심선들을 절단하고있었다. 그러다보니 자름면이 고르롭지 못하였고 용접봉의 질도 보장되지 못했다.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기술이 부족하오, 자재가 모자라오 하면서 외면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질에는 맞지 않았다.

기어이 새형의 절단기를 자체의 힘으로 만들 결심을 더놓으면서 직장장 윤재선동무는 말했다.

맨손으로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만들던 전세대들의 그 정신이면 왜 우리 손으로 절단기를 만들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되여 절단기를 제작하기 위한 전투가 시작되였다.

전력증산에 필요한 석탄분쇄기용강톱과 카바이드를 생산보장하면서 용접봉절단기를 제작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실패에 실패가 잇달았다. 하지만 그 좋은 난관앞에 주저하기에는 이곳 로동계급의 가슴속에서 끓고있는 투쟁열이 너무나 뜨거웠다.

전투가 한창이던 지난 1월 어느날 깊은 밤이였다. 임술이 부르트고 눈들이 충혈진 로동자들의 모습을 일별하는 윤재선동무의 마음은 저으기 무거웠다.

그는 며칠밤을 현장에서 새우다싶이 하는 로동자들의 동음억지다짐으로 떠밀고 작업장의 열쇠를 든든히 채웠다. 《어서 퇴근을 하라구. 집사람들 생각도 해야지.》

사무실에 들어온 윤재선동무는 육체적피로보다도 용접봉의 질을 높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무슨 방법이 없을가 하고 모대기던 그의 머리속에 무엇인가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하여 그는 자리를 박차고 현장으로 달려나갔다. 그런데 현장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서성거리고있었다.

(참, 사람들도…)

여기에 무슨 긴말이 더 필요하랴.

그들은 도면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방도를 모색해나갔다.

드디여 용접봉심선교정절단기가 완성되였다. 절단기에서 자름면이 미끈한 용접봉심선들이 흘러나올 때 그들의 기쁨은 이루 형언할수 없었다. 절단기의 겉모양은 비록 소박해도 제힘으로 마련한 창조물이여서 그들은 두눈을 슴뻑이며 오래도록 동체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자력갱생의 천리마를 타고 기적을 창조해나가던 전세대들처럼 우리 살리라.

카바이드전극승강장치개조와 용접봉피복원료배합기, 저주파철심유도로제작 등 그들이 이룩한 성과마다에는 이런 불같은 맹세가 어려있었다.

올해 1.4분기계획을 넘쳐 수행한 자랑을 안고 자력갱생직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오늘도 자기 한몸을 장그리 태워서라도 조국의 불빛을 더해줄 일념으로 생산돌격전을 힘차게 밀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신철

당결정은 우리의 생명

원산유리병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

원산유리병공장은 천리마대고조시기에 태여난 공장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생활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이 공장을 찾으시여 공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지난 기간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영광의 일터에서 일한다는 긍지를 안고 갖가지 유리제품들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생활에 적극 기여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에 늘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지난 1월초 공장의 일터마다에서는 혁신의 동음이 높이 울려나왔다. 물론 있는것보다 없는것, 부족한것이 많고 막아나서는 난관도 적지 않다는것을 이들은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더 많은 유리제품을 생산하는 길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에 주신 유훈을 관철하는 길이기에 그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던것이다.

무색유리용해로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이 벌어질 때였다.

우리의 원료, 연료에 의거하는 용해로진설은 많은 기술적문제를 해결할것을 요구하고있었다.

서로의 지혜가 합쳐지던 어느날 용해로진설전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기술고문인 박원근동무가 완성한 설계도면에 대한 합평회가 작업현장에서 진행되였던것이다.

오래동안 설계도면을 눈여겨보던 기사장이 이만하면 될것 같다고 머리를 끄덕이자 많은 사람들이 박원근동무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어려가지 유리제품생산공정을 단 몇달안에 일떠세우자는것은 당결정이 아닌가.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로당원인 내가 앞장에 서야 하지 않겠나.》

70대의 나이이지만 청춘의 기백과 열정을 안고 대오의 앞장에서 헌신하는 그의 모습에서 이곳 종업원들이 새겨안은것이 있었다. 그것은 당이 준 과업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수행하려는 전세대 로동계급의 고결한 정신세계였다.

그의 애국헌신의 모범을 본받아 공무종합작업반원들은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며 부분품가공전투를 벌리는 그들속에는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할 한 기대공도 있었다. 병원으로 등을 떠미는 공장일군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당원입니다. 먼 후날에도 오늘의 하루하루를 뼛뼛이 추억할수 있게 살고싶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안고 공무종합작업반원들은 싸우는 전선에 탄약을 보내주는 심정으로 맡겨진 부분품들을 어김없이 생산보장하였다. 지난 4월까지 여러가지 유리제품생산공정들을 일떠세운 이들은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결정을 받들어 계속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일터에 높휘는 혁신의 기상, 여기에는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실천하는 길에서 조선로동계급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가려는 이곳 로동계급의 불타는 충정이 소중히 깃들어있다.

본사기자 리건일

대고조전투장들마다에서 새로운 위훈을 펼쳐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8.28청년돌격대 제3려단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대중운동을 비약적발전의 무기로 틀어쥐고

3중3대혁명붉은기 서창수산물상점 당세포 사업에서

대중운동은 단위의 비약적발전을 탐보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서창수산물상점 당세포사업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 기술, 문화분야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켜 최후승리의 지름길을 열어나가는데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만큼 실효가 크고 위력한 운동은 없습니다.》

두해전 70일전투가 시작되였을 때였다.

강명순지배인이 당세포위원장 최홍국동무에게 상점을 령도업적단위답게 일신시키자는 안을 내놓았다. 당세포위원장도 적극 지지해나섰다.

봉사활동을 벌려나가면서 짧은 기간에 사상교양거점을 꾸리고 자체의 힘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구축하자는 혁신적인 안이였기때문이였다.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서한을 받아안은 그때부터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투쟁에서 당과 수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들이 기관차적역할을 함에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서한의 구절구절이 새겨질수록 2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고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것으로 만족해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다.

령도업적단위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면에서 본보기가 되라는것은 당의 의도이다. 그러자면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투쟁해야 한다. 이런 결심을 굳힌 당세포위원장은 3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협의회가 진행되던 날 종업원들에게 또박또박 말했다.

그동안 우리가 인민을 위해 일을 했다고 하지만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다.

그의 말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만족해있던 종업원들을 다시금 분발시키는 계기로 되였다.

이렇게 되여 사상교양거점을 꾸리기 위한 사업과 상점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결의목표에 반영되였다.

당세포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행정일군의 주도적역할을 높여준것이다.

연혁자료집을 만들고 연혁소개판을 게시하기 위한 사업이 벌어졌을 때였다. 이것을 당적분공으로 스스로 맡아안은 지배인은 말이 닳도록 어려 단위를 다니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 분향을 발굴고증하고 상점에 새겨진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한가지 사실이라도 더 찾아내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쳤다. 또한 상점에서 오래동안 지배인으로 일해오던 사람들도 만났다. 이 과정에 당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백옥같은 충정을 다 바쳐온 전세대들의 투쟁기풍을 더 잘 알게 되였다. 이런 가슴뜨거운 내용을 가지고 연혁자료집과 연혁소개판을 만든 그는 직접 해설강사가 되여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그러나 봉사활동을 벌려나가면서 높이 세운 결의목표를 수행한다는것은 쉽지 않았다.

당세포에서는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방도를 집단에 락천적인 투쟁기풍과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는데서 찾았다.

수도시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를 먹이시기 위해 마음쓰신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지고 예술소품공연을 준비할 때였다. 지배인과 당세포위원장이 직접 복제를 잡았다. 일군들이 앞장서니 종업원들이 따라나섰다. 그들은 낮에는 봉사활동을 하고 밤에는 공연준비를 했다. 이 나날에 집단이 단합되였고 일터에 랑만이 넘쳐났다. 이렇게 되니 높이 세운 결의목표를 실천하는것은 문제로도 되지 않았다. 결의목표실천을 위한 사업에서 행정일군의 주도적역할, 이것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결의목표실천을 위한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과학기술을 대중운동에서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열쇠로 틀어쥐고 기술혁명결의목표수행에서 나서는 크고작은 문제를 자체의 기술력량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도록 하는데 당세포사업의 화력을 집중한것이 주목된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대로 인민들에게 사철 물고기를 떨구지 말고 공급하자면 결정적으로 랭동능력을 높여야 했다. 그러자면 많은 자금이 필요했다. 이런 때 전공인 박명식동무가 자체의 힘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랭동압축기를 우리 식으로 개조하자는 대담한 안을 내놓았다. 당세포에서는 그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외부의 방조를 받는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자체의 기술력량이 주동이 되여 해나가는것이 단위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보았기때문이였다. 가능하였다. 그는 전기분야에 조예가 깊은 기술자였다. 당세포위원장은 그가 창조의 나래를 한껏 펼칠수 있도록 잘 밀어준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보았다. 당조직의 믿음을 새겨안은 그는 여러 공장들을 찾아다니며 경험도 배워오고 사색을 거듭하던 끝에 랭동압축기를 우리 식으로 개조하여 종전에 비해 랭동능력을 훨씬 높일수 있게 했다.

인민들에게 신선한 물고기를 공급하자면 물전기재들이 자기 성능을 발휘하게 하는것이 중요했다. 그런데 상점에 있는 랭동차들은 오래되다보니 그렇지 못했다. 그렇다고 당장 어디서 가져올데도 없었다.

당세포에서는 랭동차들의 적재함을 새로 제작하기 위한 기술력량을 편성하는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도록 종업원들을 계발시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전투장에 자력갱생과 관련한 구호와 표어를 게시하고 이틀이 멀다하게 그들이 일하는 곳에 나가 일손을 거들어주었다. 필요한 철판을 구하기 위해 지배인과 당세포위원장이 수십리길을 다녀오기도 했고 때로는 푸짐한 후방사업으로 기술혁신조성원들을 고무해주는 군수관이 되기도 했다. 그뒤를 종업원들이 따라나섰다. 여기서 큰 힘을 얻은 기술혁신조성원들은 자체의 힘으로 두대의 랭동차의 적재함을 제작하여 성능을 높이게 했다. 하여 수도시민들에게 신선한 물고기를 공급할수 있게 되였다.

당세포에서는 결의목표실현에서 실적을 낸 종업원들에 대한 평가도 공정하게 하였다.

당조직의 믿음과 집단의 방조속에 평범한 종업원들이 공로자로 떠받들리우게 되였다. 실적에 따르는 공정한 평가는 결의목표실현에 떨쳐나선 종업원들의 열의를 더욱 높여주었다. 경영활동의 콤퓨터화를 실현한 이곳 종업원들은 지난해 매대를 새로 꾸리고 랭동설비들도 그곳에서는 혁신의 동음이 높이 울려나왔다. 물론 있는것보다 없는것, 부족한것이 많고 막아나서는 난관도 적지 않다는것을 이들은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더 많은 유리제품을 생산하는 길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에 주신 유훈을 관철하는 길이기에 그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던것이다.

무색유리용해로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이 벌어질 때였다.

우리의 원료, 연료에 의거하는 용해로진설은 많은 기술적문제를 해결할것을 요구하고있었다.

서로의 지혜가 합쳐지던 어느날 용해로진설전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기술고문인 박원근동무가 완성한 설계도면에 대한 합평회가 작업현장에서 진행되였던것이다.

오래동안 설계도면을 눈여겨보던 기사장이 이만하면 될것 같다고 머리를 끄덕이자 많은 사람들이 박원근동무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어려가지 유리제품생산공정을 단 몇달안에 일떠세우자는것은 당결정이 아닌가.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로당원인 내가 앞장에 서야 하지 않겠나.》

70대의 나이이지만 청춘의 기백과 열정을 안고 대오의 앞장에서 헌신하는 그의 모습에서 이곳 종업원들이 새겨안은것이 있었다. 그것은 당이 준 과업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수행하려는 전세대 로동계급의 고결한 정신세계였다.

그의 애국헌신의 모범을 본받아 공무종합작업반원들은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며 부분품가공전투를 벌리는 그들속에는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할 한 기대공도 있었다. 병원으로 등을 떠미는 공장일군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당원입니다. 먼 후날에도 오늘의 하루하루를 뼛뼛이 추억할수 있게 살고싶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안고 공무종합작업반원들은 싸우는 전선에 탄약을 보내주는 심정으로 맡겨진 부분품들을 어김없이 생산보장하였다. 지난 4월까지 여러가지 유리제품생산공정들을 일떠세운 이들은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결정을 받들어 계속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일터에 높휘는 혁신의 기상, 여기에는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실천하는 길에서 조선로동계급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가려는 이곳 로동계급의 불타는 충정이 소중히 깃들어있다.

본사기자 리건일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려놓고

어랑군에서

어랑군에서 군산림경영소 모체양묘장에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려놓고 운영을 잘하고있다.

과학기술보급실에는 현대적인 설비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져있으며 중앙양묘장과의 원격협의체계가 세워져있다. 군의 산림부문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최신과학기술자료들이 구축된 이곳에서 나무모기르기를 비롯하여 산림조성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원격협의체계를 통해 제때에 풀어나가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산림부문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나무심기와 비배관리에서 지켜야 할 기술적요구들을 충분히 습득하면서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것만큼 나무를 심고 산림을 조성하는것도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해야 성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모체양묘장의 과학기술보급실은 응당한 수준에서 꾸려져있지 못하였다.

군당책임일군은 군산림조성실태를 료해하면서 이러한 편향을 포착하였다.

높은 사상적각오는 풍부한 과학기술지식과 기술기능수준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커다란 물질적성과로 나타날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자자구구 깊이 새겨가는 군당책임일군의 가슴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잡았다.

산림조성사업도 과학기술에 의거해야 응당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

다음날 군일군들의 협의회에서는 모체양묘장에 과학기술보급실을 더 잘 꾸리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 토의되였다.

군에서는 전설력량을 동원시켜 수십일동안에 모체양묘장에 과학기술보급실을 훌륭하게 꾸려놓았다. 그리고 콤퓨터를 비롯한 설비들을 그쯘하게 갖추어주었고 해당단위들과의 련계밑에 망통신을 실현하여 자료를 주고받게 하였다.

군에서는 과학기술보급실을 실속있게 운영하는데도 힘을 넣었다.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산림부문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은 더욱 올라갔고 나무모기르기와 비배관리에서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해마다 수백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고 창성이깔나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들의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사름률을 훨씬 높일수 있은것은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리고 그 운영을 짜고든 결과에 이룩된 성과이다.

지금 군에서는 올해에도 수백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여 짧은 기간에 굳이 말은 산림조성계획을 끝낼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자본의 착취적, 략탈적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21세기는 정보산업의 시대이다. 세계적범위에서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고있는 정보산업은 사람들의 사회경제생활을 크게 변화시키고있다.

정보산업시대 사회적생산의 주요특징은 정보와 정보기술수단을 리용한 지능로동에 의하여 물질적부의 생산이 진행된다는것이다. 이것을 악용하여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그 변호론자들은 정보산업의 발전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의 경제적처지가 개선되여가고있는것처럼 떠벌이고있다. 지어 정보산업의 발전이 마치도 자본의 착취적, 략탈적본성을 변화시키고 근로대중에게 《해택》을 가져다주어 물질생활에서 《평등》을 보장해주는것처럼 설교하고있다. 자본주의제도의 진면모를 가리우고 나아가서 근로대중의 계급의식, 반항의식을 말살하기 위한 한갖 미사려구에 지나지 않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보산업이 발전한다고 하여 자본주의사회의 계급적모순과 대립이 없어지는것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정보산업이 발전되여도 자본의 착취적, 략탈적본성이 변할수 없으며 빈부의 차이와 실업과 같은 자본주의사회의 불치의 병은 해결될수 없습니다.》

정보산업시대에 와서 근로자들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는 보다 은폐된 형태를 띠고 감행되고있다.

기계제산업시대에만 하여도 자본가들은 로동수단을 리용한 근로자들의 육체로동을 통해 물질적부를 생산하고 리윤을 짜냈다. 그만큼 산로동의 지출과 그에 따른 리윤결과를 명백히 알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자본가들은 많은 산로동의 참가없이도 콤퓨터를 비롯한 정보설비를 리용하여 물질적부를 생산하고 리윤을 증식시키고있다. 정보산업의 발전으로 직접적인 생산공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지어 생산의 무인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이것은 자본가들이 얻는 리윤이 마치도 정보기술수단의 산물인것처럼 보이게 한다.

정보설비는 그자체로써 리윤을 증식시킬수 없다. 여기에는 반드시 지식형근로자들의 지능로동이 안받침되여야 한다.

정보산업시대에 첨단과학기술의 도입으로 독점자본가들이 얻게 되는 막대한 치부는 의심할바없이 지식형근로자들의 지능로동에 대한 교활하게 은폐된 착취의 결과물이다.

정보산업시대에 와서 근로자들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는 보다 가혹해지고있다.

자본가들은 지능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그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있다.

임금은 자본주의적착취의 기본공간이다. 자본가들은 리윤률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방법에 매달려왔다. 정보산업시대에 와서도 이러한 착취방법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지능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로동력가치는 육체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로동력가치에 비할바없이 엄청나게 크다. 그것은 지능로동에 필요되는 정보기술과 같은 높은 급의 과학기술지식의 습득에 많은 비용이 들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자본가들은 지능로동과 육체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사이의 임금수준에 일정한 차이를 두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지능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지출한 로동력을 도저히 보상할수 없는 극히 낮은 임금수준에 불과하다.

지능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의 이러한 저하는 자본가들이 차지하는 리윤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있다.

첨단과학기술의 개발과 그 활용문제가 기업의 존망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나서고 기업들사이의 경쟁이 과학기술전으로 벌어지고있는 오늘날 자본가들은 높은 로동강도를 강요하는 방법으로 지능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있다. 고정된 작업장이나 작업기대들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지능로동의 특성을 악용하여 자본가들은 퇴근후와 휴식일에도 추가적로동을 진행할것을 강요하고있다. 이것은 지능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로동력지출을 극도에 이르게 한다.

원래 정보기술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리용은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켜줄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첨단과학기술이 자본가들의 리윤추구의 수단으로 리용되는것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로동은 더욱더 고된것으로 되고있다. 지능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속에서 과중한 로동으로 각종 질병이 발생하고 로동능력의 감퇴현상이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더우기 자본가들은 로동강도제고에 따르는 로동력지출마저도 제대로 보상하지 않음으로써 지식형근로자들이 창조한 로동의 열매의 보다 많은 부분을 무상으로 차지하고있다.

정보산업시대에 와서 근로대중의 경제생활처지는 개선되는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되고있다.

정보산업의 발전은 무엇보다먼저 자본주의사회의 악성병폐인 실업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있다.

오늘날 독점자본가들은 기업확대와 경영활동에 정보기술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있으며 그에 돈을 아끼지 않고있다. 생산경영활동을 최적화하여 산로동의 지출을 줄이면서도 높은 생산성을 보장하여 고률리윤을 획득하기 위해서이다.

육체로동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이 대량적으로 실업자로 전락되고있다. 지금에 와서는 비교적 안정되였다고 하던 사무로동과 기술로동에 종사하던 근로자들까지도 주요실업자로 등장하고있다.

자본주의기업들에 정보설비가 도입되는데 따라 중소규모의 생산업체들이 기술경쟁에서 밀려나 무너기로 파산되고있는것도 실업위기를 더욱 첨예하게 만들고있다.

정보산업의 발전은 다음으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있다.

사회발전과 더불어 사람들의 생활적수요는 나날이 높아진다. 특히 정보산업의 발전과 함께 그것은 지난 시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요구로 제기된다. 그러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근로자들의 소득수준은 이렇게 높이 제기되는 생활적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반대로 고급한 지능로동에 대한 착취로 독점자본가들이 차지하는 리윤수준은 천정부지로 뛰여오르고있다. 소득분야에서 근로대중과 자본가계급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차이는 물질생활에서의 극심한 불평등을 가져오고있다.

어러해전에 세계 80여개 나라의 1 500여개 도시들에서 생존권을 요구하는 근로대중의 대규모시위투쟁들이 일제히 벌어졌다. 수백년래에 처음으로 자본주의세계를 밑뿌리째 뒤흔들어놓은 이 대중적투쟁은 자본가계급의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 되여 불평등한 생활을 강요당하고있는 광범한 근로대중의 울분과 분노의 폭발이였다.

자본의 착취적, 략탈적본성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 어떤 첨단과학기술로써도 자본가계급과 근로대중사이의 불평등관계, 그로 인한 사회계급적모순과 대립을 해소시킬수 없다.

자본주의가 번영이 아니라 자멸과 쇠퇴몰락의 내리막길을 걷고있는것은 력사발전의 필연이다.

안 철 권

용서 못할 어용언론의 가증스러운 추태

최근 아베패당의 반공화국히스테리적망동에 반동보수언론들까지 합세하며 매우 악질적으로 놀아대고있다.

얼마전 일본의 NHK방송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그 무슨 《특집프로》라는것을 여러차례에 걸쳐 방영하는 망동을 부려었다.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운 이 《특집프로》에서 어용매문가들은 우리 공화국을 헐뜯다 못해 무엄하게도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심히 중상모독하는 천추에 용서 못할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력사적으로 반공화국악선전을 주요명줄로 삼아온 NHK방송의 이번 특대형도발망동은 반공화국적대감정이 골수에 찬 천하무뢰한들만이 저지를수 있는 악행의 극치이다.

언론의 생명인 객관성과 진리성, 공정성을 저버리고 아베패당이 꿰치대는 우리에 대한 악담과 궤변을 그대로 받아외우는 앵무새무리에 불과한 NHK방송이 이번에 집요하게 불어댄 허튼나발들은 사실 우리의 일이 잘되고있는데 대해 배아파하고 날로 높아가는 우리의 지위에 질투한자들의 횡설수설이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가소로운 넉두리에 지나지 않는다. 간특하고 요사스러운 어용나팔수집단인 NHK방송따위가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모략자료들을 가지고 구린내나는 입방아질을 해댄다고 하여 그에 놀랄 우리가 아니다.

하지만 감히 하늘무서운줄 모르고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헐뜯은것은 절대로,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정치적위기와 국제적고립으로 아비규환이 된 제 소굴이나 돌볼 대신 정신병자같은 인간쓰레기들의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무슨 보도거리나 되는듯이 마구 주어섬기며 우리의 존엄높은 영상을 흐려놓으려고 발악한 일본반동보수언론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누르지 못하고있다.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하여 쥐뿔도 아는것이 없는 NHK방송것들이 악의에 찬 궤변을 늘어놓은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서 천벌맞을 범죄이다. 그야말로 정신분렬증환자들이나 저지를수 있는 란동이다. 반공화국대결의 너절한 죽가마가 설설 끓고있는 일본렬도로 천만군민의 멸적의 의지가 노도쳐가는것은 당연하다.

NHK방송것들이 조선반도에서의 극적인 정세흐름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중대결단은 한사코 외면하고 력사의 쓰레기통에서 구린내를 풍기며 썩어가는 인간오물들을 화면에 등장시켜 리무너없는 모략나발을 불어대게 한 리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지지환영하는 북남화해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흐름을 가로막고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지랄발광하는 외토리장패집단 아베패당의 망동에 보조를 맞추자는것이다.

정의와 진리의 선도자로서의 언론의 사명감이 한쪼박이라도 남아있다면 군국주의마차를 타고 미친듯이 질주하는 현 일본당국의 무분별한 망동을 저지시키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하지만 NHK방송은 오히려 아베패당의 음흉한 정치적야욕실현에 국구 편승하여 대결과 전쟁을 고취하고 불의를 비호두둔함으로써 너절한 권력의 사환군, 군국주의대변자로서의 추악한 몰골을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일본보수언론특유의 도덕적저렬성은 이를 통해서도 명백히 알수 있다.

우리의 최고존엄은 우리의 긍지이고 생명이며 삶의 전부이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 가장 존엄높은 생활, 가장 강위력한 국력이 바로 우리의 최고존엄과 잇닿아있기에 우리의 천만군민은 감히 그에 도전해나서는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으며 무자비하게 징벌할것이다. 이것이 하늘무서운줄 모르고 해덤비며 특대형범죄행위를 마구 저지르는 일본반동보수언론들에 대한 우리의 준엄한 경고이다.

NHK방송은 저들의 반공화국모략보도가 초래할 파국적후과에 대하여 똑바로 알고 늦게나마 우리 인민앞에 무릎꿇고 사죄하여야 한다.

언론의 본분을 망그러 헤버리고 권력에 아부굴종하며 수치스러운 매문의 길을 계속 걷는 NHK방송과 같은 반동보수언론들에게 차례질것은 세계의 규탄과 배격, 두고두고 지울수 없는 력사의 오명, 혹독한 징벌뿐이다.

허 영 민

력사가 남긴 피의 교훈

얼마전 꾸바외무성이 인터네트홈페지에 《불리비아대통령이 꾸바독립전쟁시기 군사적으로 간섭한 미국의 제국주의적성격을 폭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 내용을 보면 1898년에 미국이 에스빠냐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꾸바인민의 독립전쟁에 대한 《지원》을 운운하며 군사적으로 개입하였다는것, 하지만 진짜목적은 꾸바의 독립이 아니라 이 나라를 에스빠냐로부터 빼앗기 위한데 있었다는것이다.

그것은 력사가 폭로하는 부정할수 없는 진실이다.

당시 꾸바혁명군의 투쟁에 의해 에스빠냐식민지통치가 붕괴의 위기에 처하였을 때에 미국은 에스빠냐와 전쟁을 벌렸다. 꾸바의 아바나항에 있던 《메인》호의 모략적인 폭발로 시작된 미국—에스빠냐전쟁은 식민지재분할을 노리고 미국이 도발한 최초의 제국주의전쟁이였다. 이 전쟁이 에스빠냐의 패배로 끝난 후 꾸바는 에스빠냐의 식민지로부터 미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다른 나라들에 절대로 독립과 주권을 선사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를 빼앗으려 하는것이 바로 제국주의자들이다.

미국—에스빠냐전쟁이 끝난 때로부터 12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주권수호와 령토완정을 위한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군사적으로 공공연히 간섭하는 미국의 침략적본성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시기보다 더 교활해지고 흉악해졌다.

수리아사태가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의 수리아사태와 19세기말의 꾸바독립전쟁은 장소와 시대적배경, 그 동기와 성격 등에서 다른 점들이 많지만 미국의 침략적, 지배주의적본성을 적라라하게 폭로하는데서는 꼭같다.

꾸바독립전쟁시기에 미국은 꾸바인민의 《해방》을 《지원》한다는 명목밑에 군사적으로 간섭해나섰다. 오늘은 《반테로》, 《인권유린방지》, 《대량살륙무기사용저지》 등을 구실로 수리아내정에 로골적으로 개입해나서고있다.

마치도 해당 나라 인민들을 생각해주는것처럼 떠들면서 군사적으로 간섭하는것은 정부전복과 식민지화를 노린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하고 상투적인 침략수법이다.

미국의 군사적간섭으로 수리아사태는 장기화되고 도시와 마을은 황폐화되였으며 인민들은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다. 수리아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이 나라의 반정부세력에게 주는것으로서 사태를 확대시키기 위한데 목적을 둔것이다.

미국의 《원조》는 다른 나라들의 정부를 전복하는데 써먹는 위험한 무기이다.

미국은 해당 나라의 반대파세력들에게 무기와 자금을 대주면서 반정부폭력에로 부추기고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적무질서와 혼란이 일어나고있는것은 미국이 반정부세력들을 《지원》해주면서 정부전복에로 내몰고있기때문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지배와 예속, 내정간섭과 략탈의 수단이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는 항상 부대조건들이 붙는다. 그들은 정치체제의 변경과 엄청난 경제적리권의 제공을 요구한다. 한마디로 말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는 하나를 주고 열, 백을 빼앗아내기 위한 지배와 략탈의 올가미이다. 그들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릴 때에는 얼마 되지 않는 《원조》도 서슴없이 잘라버린다.

최근에 미국은 파키스탄이 저들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는다고 하여 군사《원조》를 중지하였다.

미국의 《원조》, 특히 군사《원조》에 대한 환상과 기대는 곧 죽음이다. 이것은 력사가 남긴 피의 교훈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원조》를 받아들이면 군사적으로 예속되게 되고 나중에는 식민지로 전락되고만다.

지나온 력사와 오늘의 정세는 자주를 지향하는 나라들이라면 마땅히 《원조》를 구실로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행위를 거리낌없이 감행하고있는 미국의 책동에 언제나 각성을 높이고 그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도높게 벌려야 한다는 철리를 다시한번 새겨주고있다.

리 학 남

대결광신자들의 반통일적광란

입만 벌리면 대결망발을 쏟아내는 남조선보수패당의 그 못된 악습은 어디 갈데 없다. 이자들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적조치를 터무니없이 시비중상하면서 동족대결을 미친듯이 고취하고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패거리들은 우리 당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가 선포되고 이와 관련한 조치들이 취해진것과 관련하여 《위장평화극》이라느니, 《큰 의미가 없다.》느니 하고 악의에 차서 헐뜯으면서 《대북압박은 계속되여야 한다.》는 고약한 망발들을 줴치였다.

그 앞장에 《자유한국당》대표 홍준표가 서있다. 이자는 《〈넝변랭각함록과국〉을 련상케 한다.》고 줴쳐대다 못해 나중에는 북남수뇌회담까지 헐뜯는 용납 못할 망언까지 내뱉았다. 그야말로 동족이 하는 일이라면 무턱대고 시비질하는 대결병자들의 히스테리적망동이며 통일과 평화에로 향한 거족적대하에서 밀려난자들의 단말마적발악이 아닐수 없다.

우리 당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가 이룩됨으로써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갖추기 위하여 허리띠를 조이며 간고분투하여온 우리 인민의 투쟁이 빛나게 결속되였으며 우리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가 이번에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중지하고 북부핵시험장을 페쇄하기로 결정한것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조치이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인류공동의 념원과 지향에 부합되게 핵무기없는 세계건설에 이바지하려는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립장은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열렬한 지지환영을 받고있다.

그런데 유독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패당만은 미국상전까지도 《좋은 소식》으로 반기고있는 긴장완화와 평화수호를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을 악의에 차서 헐뜯으면서 동족대결을 고취하고있다.

그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조선반도에 불고있는 평화의 훈풍을 대결의 역풍으로 뒤집어놓자는것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 공화국의 북남관계대전환방침과 그에 따른 련속적인 과격적조치들로 하여 조선반도정세는 극적으로 전환되고있다.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날로 고조되고있으며 평화와 통일이 시대의 흐름으로 되고있다.

여기에 도전해나선것이 바로 남조선의 보수패당이다. 이 반역무리는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가 우리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조치로 대화와 긴장완화에로 확고히 지향되자 극도로 당황망조해하면서 대세의 흐름을 가로막으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떨거지들은 사상 류례없는 동족대결책동으로 북남관계를 어지없이 파괴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극도로 고조시킨 반통일무리이다. 민족의 단합과 통일과 남조선의 진보개혁세력들과 광범한 사회 각계가 보수패거리들의 추태를 《북남대화에 고추가루를 뿌리는 처사》, 《동족이 어떤 일을 하든 위장극으로 보는 놀부심보》,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발언》 등으로 단죄규탄하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다.

남조선보수패당이 우리를 마구 걸고들며 대결광기를 부리는것은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에로의 흐름을 불신과 대결의 과거에로 되돌려세워보려는 력사의 반동들의 단말마적발악이다. 여기에는 케케묵은 《색갈론》, 다 거덜이 난 《안보장사》놀음으로 남조선민심의 통일기운을 말살하고 다가오는 지방자치제선거를 보수재부활의 기회로 만들어보려는 더러운 흉심이 깔려있다.

남조선보수패당이 악담질을 일삼으면서 우리가 쥐한 전략적조치의 력사적의미와 거대한 파급력을 깎아내리려고 발악하고있지만 가소롭기 그지없다.

죄는 지은데로 가기마련이다.

제명을 다 산 시대의 오물들이 구린내나는 주둥이를 마구 놀려대며 제아무리 발악해도 장엄한 력사의 대하를 막을수 없으며 민족의 명부에서 이미 지워진 인간쓰레기들은 그 도도한 흐름에서 밀려나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심 철 영

중국에서 농촌주민지대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중국이 농촌주민지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관심을 돌리고있다. 4월 26일 절강성 안길현에서 전국의 농촌주민지대 환경개선을 위한 회의가 소집되였다.

회의에서 국무원 총리 리극강이 중요지시를 하달하였다.

그는 농촌주민지대 환경을 개선하는것은 향, 촌진흥전략을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임무이며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기본요구이라고 밝혔다.

각 지역과 해당 부문들이 생태환경이 훌륭한 농촌건설을 위해 력량을 통원하고 농민자신들의 적극성을 발동하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미국의 악랄한 반이란적대시책동에 맞서

이란이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나가고있다.

지난 4월 18일 수도 테헤란에서는 군대절에 즈음한 열병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이 나라 대통령과 이슬람교혁명근위대를 비롯한 무장력의 고위지휘관들의 참가하에 각 군종, 병종부대 종대들이 열병행진을 하였다.

또한 이란군대와 인민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생산한 각종 미싸일들과 땅크, 장갑차, 반항공체계를 비롯한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이 관중의 시선을 모으며 열병광장을 지나갔다.

이날 나라의 남부수역에서는 국내산 함선들이 참가한 이란해군의 무력시위가 있었다.

하싼 루하니대통령은 열병식에서 한 연설에서 지금 침략자들이 중동지역에 둥지를 틀고 비법적으로 주둔하고있으면서 유엔의 허락도 없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행위를 감행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이란은 자기 령토를 수호하기 위해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강화해나갈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결코 그 누구의 승인을 받아 국가방위에 필요한 무기들을 생산하지 않을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열병식을 통하여 이란은 미국과 서방의 끈질긴 위협공갈과 제재압박책동에도 끄떡없이 나라의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해나갈 의지를 다시금 과시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은 반미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이란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미국은 2015년 7월에 체결된 이란핵합의에 따른 저들의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지 않을뿐아니라 핵합의를 《파국적인 오유》라고 시비중상하면서 제재상을 통해 조항들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합의에서 탈퇴할것이라고 위협하고있다.

올해 미재무성은 미싸일계획에 관여하였다는 리유로 이란의 개별적인물과 기업체를 포함하여 19개의 대상을 제재목록에 올렸다.

또한 그 무슨 《악의적인 싸이버활동》을 벌렸다고 떠들면서 이란의 마르나연구소와 10명의 개별적인물의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들이 그들과 거래하는것을 금지시켰다.

최근에는 미국무성이 《2017년 나라별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이란의 인권상황을 헐뜯었다.

이란정부는 미국의 가증스러운 적대시정책을 짓부시기 위한 과감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이란외무상은 미국이 핵합의에서 탈퇴하는 경우 이란은 그에 보복할수 있는 폭넓은 선택안을 가지고있을뿐아니라 재협상을 반대하는 립장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으며 이 나라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은 만일 미국이 끝끝내 합의에서 탈퇴한다면 자기 나라가 4일내에 20%농도의 농축우라늄생산을 재개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가 계속 취해지고있는 속에 최근시기 이란의 미싸일생산은 지난 시기에 비해 3배로 늘어났으며 동시에 함선용핵추진체계개발도 적극 추진되고있다.

미국의 점요하고도 악랄한 반이란책동에 맞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이란정부의 노력은 이 나라 군대와 인민들로부터 광범한 지지를 받고있다.

근로자들의 생존권마저 짓밟는 자본주의사회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근로대중의 처지가 날로 암담해지고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짓그리 유린당한채 한줌도 못되는 독점재벌들과 자본가들의 리윤추구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대다수 근로자들이 고용주들에게 가혹한 착취를 당하다가도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로 전락되고있다.

미국 등 서방나라들이 망라되여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밝힌데 의하면 기구성원국들에서 실업자수가 올해 1월현재 무려 3 450만명에 달하였다.

미국에서는 6개월이상 일자리가 없이 생활하는 장기실업자가 2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경영악화와 구조조정의 명목하에 대대적인 일자리축감소동이 계속 벌어지는 가운데 영국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기간에 실업자가 145만명이였으며 일본의 실업자수는 169만명을 헤아리고있다.

에스빠냐에서는 올해 1.4분기에 실업자수가 380만명으로서 16.74%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이밖에 도이췰란드와 아일랜드 등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실업형편은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다.

실업위기로 가족이나 생활난에 또들리는 자본주의나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천정부지로 뛰여오르는 물가와 생계비는 또 하나의 큰 근심거리로 되고있다.

도이췰란드에서 지난해 물가가 그 전해에 비해 평균 1.8% 인상되였으며 에스빠냐와 일본에서는 올해 3월에 소비자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1.2%, 0.9% 높아졌다.

미국에서 지난해 11월까지의 1년동안에 살림집가격이 그 전시기에 비해 7% 인상되였다. 이 나라에서는 55만 4 000명이 집이 없어 떠돌이생활을 하고있는데 이것은 2년전에 비해 약 10% 증가한것이다.

일본에서도 살림집가격이 몇년째 계속 오르고있으며 아일랜드에서는 지난해에 살림집평균가격이 그 전해에 비해 8.4% 나 인상되였다.

악화되는 실업위기와 물가상승으로 자본주의나라 근로자들속에서 빈궁이 더욱 심화되고있다.

영국에서 항시적인 빈궁에 시달리는 주민수가 460만명에 이르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거의 40만명의 근로자들이 돈을 내지 못하여 전기와 가스, 땔감을 사용하지 못하고있으며 저소득층 근로자들중 3분의 1은 보통 점심 한끼를 굶는다고 한다.

미국에서 2016년에 전국적인 빈궁자수가 4 060만명에 달하였으며 그들중 45.6%가 국민자로 전락되였다.

이딸리아의 빈궁자수는 10년전에 비해 310만명 더 늘어나 1 810만명에 이르렀으며 오스트랄리아에서는 290만명이 빈궁선이하에서 생활하고있다.

포르투갈, 도이췰란드, 카나다에서도 근로자들 대부분이 사회적부의 불공평한 분배로 인해 극심한 생활난에 허덕이고있다.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무참히 빼앗기고 삶의 막바지에서 헤매이고있는 자본주의나라 근로자들의 불우한 운명은 바로 반인륜적이며 반인민적인 악정이 낳은 필연적인 산물이다.

국도의 개인주의와 인간멸시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제도하에서 근로자들의 처지는 언제가도 달라질수 없는것이다.

미국의 음흉한 목적을 폭로

로씨야국방상 쎄르게이 쇼이구가 4월 24일 중국의 베이징에서 진행된 상해협조기구성원국 국방상회의에서 미국의 음흉한 목적을 폭로하였다.

그는 미국과 나토가 아프가니스탄에 15년이상 주둔해있지만 사태는 계속 악화되고있다고 하면서 이 나라에서는 마약이 성행하고 테로분자들의 범죄활동이 증대되고있으며 《이슬람교국가》악당들의 립지가 강화되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본질에 있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들고앉아있는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중앙아시아지역 국가들에 대한 자들의 영향력을 확대하자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로씨야국방상은 또한 미국주도의 《반테로련합》이 수리아에서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폭압에 계속 열을 올리고있다.

4월 27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대와의 경계지역에서 대규모적인 반이스라엘시위에 참가한 팔레스티나인들에게 실탄과 최루탄, 고무탄을 마구 쏘아대며 탄압에 광분하였다. 그로 하여 시위자들속에서 3명이 살해되고 883명이 부상당하였다.

이날 가자지대 보건당국은 3월 말부터 현재까지 5차례 진행된 시위과정에 이스라엘군의 야수적인 살인행위로 팔레스티나인 45명이 목숨을 잃고 6 50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유태복고주의자들의 계속되는 살인만행은 팔레스티나인들뿐아니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미국과 그리스에서 파업과 항의시위

미국 아리조나주의 피닉스시에서 4월 26일 교원들의 처지개선을 요구하는 대규모파업과 시위가 벌어졌다.

파업과 시위에는 교원들을 비롯하여 7만 5 000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시내거리를 행진하면서 교원들의 임금을 올리고 교육무문에 대한 지출을 늘일것을 시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자기들의 요구조건이 실현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 벌려나갈 립장을 밝혔다.

이날 파업과 시위로 수백개의 학교들이 문을 닫는 등 혼란이 조성되였다 한다.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4월 25일 당국의 긴축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수천명의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당국이 부당한 구실밑에 년로자들과 사회적보호대상들에 대한 년금을 삭감하기로 결정한데 항의하였다.

그들은 당국의 반인민적인 경제정책으로 하여 자기들의 생활처지가 더욱 어려워지고있다고 개탄하면서 부당한 시책을 반대하여 투쟁을 계속해나갈 립장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ㄱ-810687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